

캄보디아 “쌀 수출 금지” ... ‘식량안보’ 주목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식량 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4월 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연간 쌀 50만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센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미를 거친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한다. 향미쌀은 제외된다.”며 “국내 공급 관련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까지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 24일부터 추가 쌀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 베트남의 조처는 응우옌 쉰언 폭 총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식량 안보는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왔다.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로 쌀 637만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은 쌀은 아니지만, 계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계란 국내 수요

가 평소보다 세 배 가량 급증하며 가격이 오르자 일주일간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고,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량 수출 금지는 동남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지난 20일부터 열흘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모스크바 시내 몇몇 유통매장에서는 곡물 등 일부 품목이 품귀현상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기존 식량 수급 취약 국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한 쌀 중개인은 통신에 “베트남 쌀 수출 금지가 계속되면 세계 쌀 시장 공급량이 10~1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소비하는 쌀의 80%를 수입하는 홍콩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주민들이 쌀, 달걀 등을 사기 위해 상점 밖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쌀 등의 식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파나마, 성별 2부제 외출 도입

파나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성별 2부제 외출을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나마에서는 전날부터 남녀가 함께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성별 2부제 외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월, 수, 금요일, 남성은 화, 목, 토요일에만 외출할 수 있다. 외출 목적은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 등으로만 한정되며 2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일요일에는 남녀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한다.

파나마 정부는 최근 신분증 끝자리 숫자에 따라 시간대를 정해 의약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한 이동을 허용했는데 위반 사례가 많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파나마 보건부에 따르면 성별 2부제 외출이 실시되기 직전 주말에만 2천 명 이상이 격리 지점을 위반해 적발됐다. 후안 피노 파나마 보건장관은 성별을 기준으로 외출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 파나마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성별 2부제 외출을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별 2부제 외출 방안은 홀수·짝수 2부제 등에 비해 통제나 단속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 2부제 외출이 시행되자 성소수자 단체에선 이것이 성전환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케냐 경찰 ‘코로나 통금’ 단속 중 발포 ... 5명 사망



▲ 곤봉 등으로 무장한 케냐의 경찰들이 통금시간을 어긴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내린 케냐에서 ‘통행금지’를 단속하는 경찰의 총격에 13세 소년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0일 저녁, 집에 있던 야신 모요의 가족은 길거리에서 경찰이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다. 야신의 어머니는 서둘러 자녀를 위층으로 올려보냈고, 2층 발코니에 서있던 야신과 여동생들을 발견한 경찰은 총을 쏘았다. 야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야신의 아버지는 후세인 모요는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이랑 싸운다.”며 경찰의 조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케냐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충분치 않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케냐 정부는 또다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대형 마켓에 이어 노상 식료품점도 강제 폐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런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